



박대성 화백의 개인전 '원융(圓融)'이 11월 24일까지 종로구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다. 눈오는 불국사를 8m 화폭에 펼쳐낸 '불국설경2013'

시공간 넘은 조화의 세계 '원융'

박대성 개인전 11월 24일까지



눈 오는 날의 불국사가 8m의 장대한 화폭에 담겼다. 세필로 섬세하게 표현된 건축물과 화면을 가로지르는 소나무의 역동적인 구성이 인상적인 '불국설경'.

년 채, 동시에 서로 원만하게 조화를 이루는 원융에 다다른다.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원융은 시공간을 초월해 정신적인 조화를 이루려는 작가의 노력과 상통한다. '원융'

수묵화와 오백나한 '원융'에 펼쳐 눈 오는 불국사 풍경 8m 화폭에 종교 초월한 화합의 세계 담고자



수묵산수와 나한상을 결합한 '원융'

박대성 화백의 개인전 '원융(圓融)'이 11월 24일까지 종로구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불국설경, 고미2, 원융, 남산, 부처바위, 봉암사 백운대, 운무 등 불교문화재와 전통의미를 먹으로 표현한 50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경주를 소재로 그림을 그려오고 있는 작가는 불국사 남산 등의 정경들을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를 아우르며 자신만의 시각으로 펼쳐낸다. 또한 옛것을 통해 우리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는 다양한 불교문화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담아낸다. 그 중에서도 '원융'은 수묵산수와 나한상을 결합한 작품으로 과감한 화면 구성과 견고한 필력이 돋보인다.

은 막힘과 거리낌이 없이 두루 통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원효대사의 '원융무애(圓融無碍)'에서 가져왔다.

"우리 모두가 본모습을 잃어가고 있어요. 종교도 본모습을 잃어가고 정치도 본모습을 잃어가고 있죠. 자기의 모습을 지킬 줄 모릅니다. 원융(圓融)은 자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자는 겁니다. 대자연의 섭리를 떠나서는 안 되며 본 모습을 잃지 않고 두루두루 화합하자는 뜻이 이번 작품에 담

겨 있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태어난 그는 다섯 살 때 6·25를 만나 부모와 왼쪽 팔을 잃었다.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놀러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그는 혼자서 방에 틀어박혀 지내며 병풍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이렇게 묵화부터 고서에서 이르기까지 독학으로 고행의 길을 걸은 그는 1970년대 국전에서 입선과 특선 등 여덟 번이나 수상했고, 79년 중앙미술대전 대상을 받으며 화단에 이름을 알렸다.

한국화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그의 작품은 호평을 받았다. 인기작가로 우뚝 솟은 1994년,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났고 추상화·크로키·수채화를 공부하다 경주 불국사가 불현듯 떠올라 1년 만에 귀국해 그린 대작이 불국설경이다.

이후 경주에 머물며 불교문화재, 전통을 소재로 다양한 작품을 그려내 온 박대성 작가. 고승들의 자취를 더듬기 위해 <왕도 천축국전>을 집필한 혜초 스님의 자취를 따라 몇 번씩 실크로드 여행도 다녀왔다고 한다. 가톨릭 신자지만 작가는 종교를 초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는 더 넓고 깊어지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기울인다.

내년 가을에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에 그의 이름을 내건 시립미술관이 문을 연다. (02)720-1020

정혜숙 기자

티베트 분신 희생자 진혼춤으로 위로

내년 봄 개봉하는 사유진 감독의 'Peace in Tibet'

여인의 춤사위는 때로는 격정적이었고 때로는 애절했으며 때로는 허공을 가로지르며 영혼과 맞닿아 있었다. 티베트 독립을 외치며 분신으로 숨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무용가 최경실 씨의 춤이 사유진 감독의 영상에 담겨 새로운 장르로 탄생했다.

2013년 대원상 콘텐츠 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Peace in Tibet'은 시사회를 마치고 내년 3월 7일 티베트 불기대회에 앞서 개봉한다. 영화는 티베트의 분리 독립과 달라이라마의 귀환을 요구하며 분신한 티베트인들의 실상을 알리고자 티베트 불교 염불과 진혼무 그리고 희생자의 이름 불러주기가 혼합된 새로운 형식으로 구성됐다.

사유진 감독이 티베트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3년 전부터라고 전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들이 왜 이렇게 연달아 분신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겼죠. 70,80년대 한국에서도 전태일 열사 등이 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외치며 분신을 했잖아요. 티베트의 현실을 알면 알수록 이를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 감독이 영화 촬영을 계획할 즈음 또다른 희생자가 나왔다. 3월28일 티베트 압도 간호지역의 모리사원 부근 교차로에서 28살의 판촉맨인 스님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것이다. 그는 분신으로 티베트의 독립을 외친 114번째 분신자이며 100번째 희생자였다.

그들은 분신했지만 죽기보다는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다. 감독은 이를 춤으로 평화롭게 아름답게 말하고 싶었다고 한다.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을 춤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영화는 여느 다큐 영화처럼 과도한 해설이



티베트의 독립을 외치며 분신한 티베트인들의 실상을 알리고자 제작된 'Peace in Tibet'은 2013년 대원상 콘텐츠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영화는 티베트 불교 염불과 진혼무 그리고 희생자의 이름 불러주기가 혼합된 새로운 형식으로 구성됐다.

티베트 문제 세상에 알리고자 기획 무용가 최경실 씨의 춤 중심으로 희생자 100명 이름 불러주는 의식 영상으로 담으며 새로운 장르 개척 대원상 콘텐츠부문 장려상 수상



사유진 감독은 햇살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외 인권 문제를 시네댄스라는 새로운 장르로 표현해 냈다.

나 안내와 설명, 자극적인 자료 화면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스러운 영화 기법을 통해 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3일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 남갈사원 입구에서 100번째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분신허가 추모 및 평화기원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영화 내러티브의 중요한 축이 춤이죠. 여기에 티베트 스님들과 참가자들이 분신 희생자 100명의 이름을 불러주는 과정을 담아냈죠. 이는 진혼의 의미를 넘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Peace in Tibet'은 사 감독은 햇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두 번째 영화다. 오랫동안 다큐 영화를 만들어 온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외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극과 다큐를 혼합한 새로운 장르로 펼쳐내고자 한다. "첫 프로젝트가 5.18 광주였어요. 앞으로 제주도 4.3 아우슈비츠 동학농민운동, 베트남 인민학살 등을 매년 씨네 댄스라는 새로운 장르의 작품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석용 스님 '종이, 꽃으로 피다' 전

11월 20일까지 소담한갤러리서

석용 스님(천태종 승단 승덕사 주지)이 11월 20일까지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 소담한갤러리에서 '종이, 꽃으로 피다' 지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지화는 옛날 우리 선조들의 잔치상에 올라갔던 꽃들이다. 노란색은 양파와 치자로 빨강색은 소목(蘇木), 보라색은 머루와 지초로 물들이는 등 모두 산과 들에 피어있는 초목을 이용해 종이를 염색했다.

용됐던 꽃들 위주로 작품을 만들었다"며 "민간에서 주로 사용했던 꽃을 이용해 부처님을 찬탄하는 지화를 만든 이유는 승속이 돌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40여 작품을 선보인다. 스님은 "꽃 모양에 맞게 종이를 재단하고, 염색해서 말리고, 칼로 살을 접는 과정을 일일이 손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과 같다. 지극한 마음으로 종이 한 장 한 장에 마음을 다해 지화를 완성해 나갔다"며 작업과정을 설명한다.



자연재료로 염색한 종이로 제작된 석용 스님의 지화 작품

스님의 전시는 서울과 구인사도도 이어진다. 12월 5일~11일 서울 인사동 백악미술관 2층에서, 구인사 불교천태종양방박물관에서는 12월 말에서 2014년 2월말까지 열린다. (043)420-7315

정혜숙 기자

BBS울산불교방송, 차문화한마당

BBS울산불교방송(FM 105.3MHz)이 '제5회 울산 차문화한마당'을 11월 15일 울산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과 롯데백화점 광장 일대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공식행사인 1부 개막식과 2부 차문화 세미나,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개막식은 불교중앙차인회의 다도시연에 이어 개막선언과 삼귀의·반야심경 봉독, 인사말·축사, 사후서원 등으로 진행된다. 축하공연으로는 울산BBS분다라가 합창단과 울산학춤보존회 공연이 마련된다. 2부 차문화 세미나에서는 예명다례원의 다도시연과 함께 서진길 울산문화원장과 한국중국차학연구원 정우화(중국) 원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부대행사로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다도회 30여개 팀이 마련한 차 시음회와 시연회, 전시회 등이 준비된다.

정혜숙 기자

영종불교회관 '땡큐 붓다' 콘서트

정율·도신 스님 출연...마가 스님 강연도

영종불교회관(주지 자명)과 (사)170원의 생명나눔(회장 이만기)에서는 11월 17일 영종도 공항신도시에 위치한 '하늘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영종 주빈과 불자들을 위한 '제 1회 자명스님'과 함께하는 땡큐붓다 콘서트'를 연다.

콘서트 전에는 힐링 멘토 '마가 스님'의 '자기 행복찾기'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이 펼쳐진다. 콘서트에는 정율 스님, 도신 스님(서광사 주지), 자명 스님 등이 출연한다. 여기에 이만기 교수의 공연이 '타 아트'의 새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차 연구가 최송자 명인의 선을 찾는 차와 명상 퍼포먼스 공연도 진행된다. (010)-9343-3001

정혜숙 기자

조계종 전장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2번째 저서 출간!

*** 바로보인 선문염송 23권**

전30권 중 제23권 출간! 전통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화두 (한영중 3개국어판)**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현재 31종 62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

모든 교법을 모아一心으로 통하도록 한 회통불교의 백미! 팔만대장경의 축소판!

「원인론」과 「발미록」을 번역·해설한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스님 번역·해설 신국문 | 양장 | 250페이지 | 348쪽 | 20,000원

출간 즉시 2쇄 돌림!

문·사·철의 모범이자 비교종교학의 효시 선교사수의 증파를 초월한 수행지침서

이 책은 먼저 중요한 교상관설들의 개요를 보았다. 화엄종의 제5조이며, 선교일치(敎一致)를 주장한 규봉종민(圭峰宗密: 780~841) 선사의 '원인론'은 원문을 실어서 번역하였으며, 논주의 글과 해설문을 구별하기 쉽도록 이색(異色)을 사용하였다. 정철(正徹: 1011~1088) 법사가 '원인론'을 해설한 '발미록(發秘錄)'은 원문을 번역하여 옮기고, 중요한 글은 원문을 실었으며, 각 장마다 요점을 정리하고 해설하였다.

이 책은 유교와 도교의 교법을 요약하여 그 근본을 밝히고, 미혹함과 집착함을 비판하여 물리쳤다. 다음은 불교의 교법을 인천교, 소승교, 대승법상교, 대승과상교, 일승현상교로 분류하고, 그 교법의 내용과 근본(法)을 밝힌 뒤에, 치우침과 알음과 깊음을 분별하였다. 또한 선문의 삼종과 교문의 삼교를 비교하여 선문과 교문이 지향하는 정점은 동일함을 밝혔다. 끝으로 인간세계의 근본인 일심을 밝혀서, 모든 교법을 모아 일심으로 통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수승한 근거는 이 '논'의 뜻을 단박에 깨달아 알은 것을 버리고, 성품을 바로 보인 깊은 교법을 의지하여 원대한 일심의 바다로 향하여 물러나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목현 ☎ 055-375-5844, 카페 '아미타파'(cafe.daum.net/amitapa) 비움과소통 ☎ 02-2632-8739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히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루	자색죽염 125g	40,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민속죽염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색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